



08-22 (통권 300호)

2008.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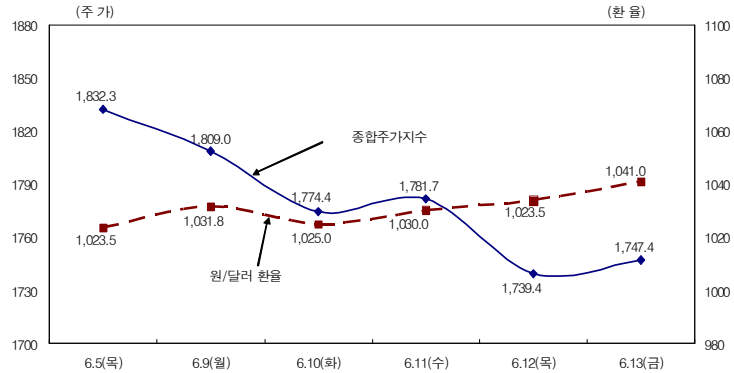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최근 고용창출 부진의 특징과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5~6.1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최근 고용창출 부진의 특징과 시사점	1
주간 경제 동향	15
□ 실물 부문 : 생산자물가 급등세 지속	15
□ 금융 부문 : 주가 급락 및 금리 급등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 시 경 제 실   :   조 호 정   연구원           (3669-4047, chjss@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최근 고용창출 부진의 특징과 시사점

#### 1. 문제의 제기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급감하고 있다. 경제 규모와 인구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는 1970년대 평균 1,208만명에서 2000년대 평균 2,272만명으로 대폭 증가해 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고용탄성치(취업자수증감률/경제성장률)는 1972~1979년 평균 0.5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2007년에는 0.26까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고용탄성치가 1993~1997년 기간의 -0.35에서 2002~2007년 기간에는 -0.13으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고용없는 성장 이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도 고용탄성치가 동기간 0.72에서 0.50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1%당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1991~1997년 기간 연평균 약 6만 3천명에서 2002~2007년에 약 5만 9천명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 들면서는 신규 일자리 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신규 일자리 수의 증가 추이는 계속 하락하여 2008년 3, 4, 5월 연속 20만개에 미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가율도 전년동월대비 1%이하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과 4월의 고용 창출 부진 현황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고용 형태별 등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 2. 2008년 신규 고용창출 부진 현황

**(고용동향 추이)**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2008년 1/4분기 현재 3.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 62.1%에서 2008년 1/4분기 60.5%까지 하락하고 있으며, 고용율도 59.8%수준에서 최근에는 58.5%로 하락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7년까지 전년동기 대비 28~29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1/4분기에는 20만개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특히 3~5월 기간에는 20만개에도 미달하고 있다.

**(부문별 현황)**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일자리는 2006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만 2천개 감소에서 2008년 1/4분기에는 2만 4천개 감소로 감소세가 개선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2006년 1/4분기 43만 7천개 증가에서 2008년 1/4분기에는 29만 5천개 증가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은 2007년 2/4분기 17,164천명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3/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1/4분기 16,450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2007년 2/4분기 1,821천명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3/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8년 1/4분기 1,867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세부 부문별 신규 일자리 창출력 감소 섹터는 내수 관련 소규모( ~29인 이하) 서비스업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전년동기대비 △13만 명), 소규모 운수업(△8만명), 소규모 부동산 및 임대업(△5만명), 소규모 사업서비스

업(△5만 9천명) 등이다. 반면 신규 일자리 창출력 증가 섹터는 대규모 건설업(전년 동기대비 4만 4천명), 소규모 보건·사회복지사업(4만 3천명), 대규모 사회서비스업(2만 명), 대규모 교육서비스업(2만 7천명) 등이다.

**(고용 형태별 현황)**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로는 정규직 근로자는 2005년 8월 9,486천명에서 2008년 3월 현재 10,356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7년 9월 이후 급증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7년 3월 5,773천명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3월 현재 5,638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 비중은 2007년 9월 63.3%에서 2008년 3월 64.8%까지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36.7%에서 35.3%로 하락했다. 상용/임시 근로 여부로는 상용근로는 크게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신규 일자리는 2008년 3, 4월 평균 4만 5천개 증가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동기간 3만 3천개 증가 대비 1만 2천개가 순증한 것이다. 반면, 임시근로자 신규 일자리는 2008년 3, 4월 평균 1만 7천개 감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동기간 8만개 증가 대비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2만 3천개 급감한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의 일자리는 2007년 3, 4월 평균으로 전년동기대비 2천개 감소에 그쳤으나 2008년에는 7만 4천개 감소(서비스업에서만 6만 1천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 3. 신규 고용창출 부진의 다섯가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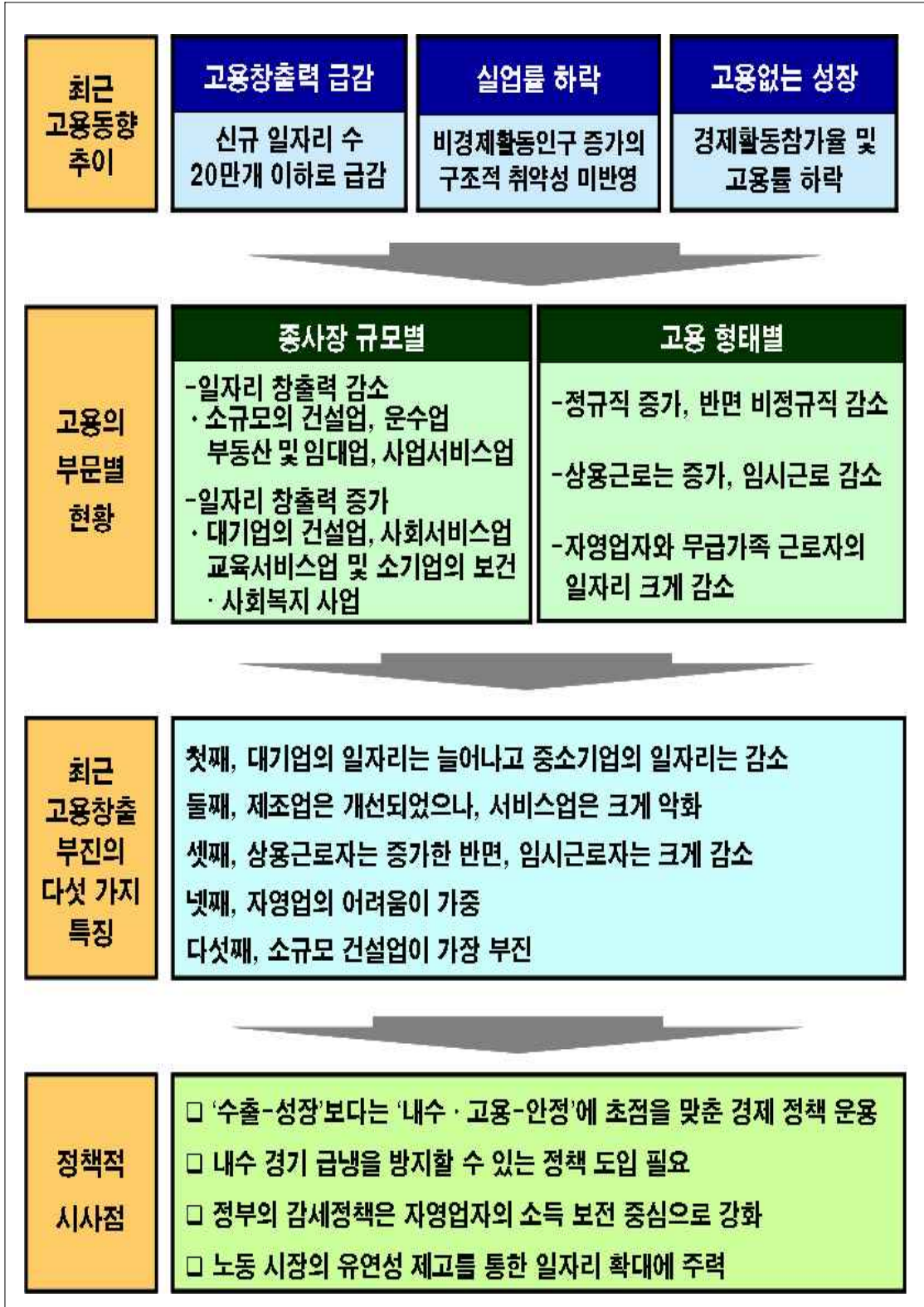
첫째, 2007년 2/4분기 이후 대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2007년 3, 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4만 2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2008년 3, 4월에는 5만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세 전환의 시점은 2007년 3/4분기부터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동기간 각각 16만 9천개와 2만 9천개에서 8만 6천개와 5천개로 급감하고 있으며, 역시 2007년 3/4분기가 추세 전환시점이다. 둘째,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은 개선되는데 반하여 서비스업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은 2007년 3, 4월 평균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 3천개의 일자리 감소세에서 2008년 3, 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2만 2천개 감소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2007년 38만 6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2008년에는 25만 9천개 증가에 그치고 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건설, 운수, 통신, 도소매, 숙박 및 음식, 부동산 및 임대 등 내수 관련 업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종업원 2인 이하의 소기업 일자리 감소가 특히 심한 상태이다. 셋째, 상용근로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임시근로 일자리는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로는 신규 고용 창출이 줄어들고 있다. 상용근로 일자리 수는 2007년 3, 4월 평균 31만 3천개 증가한데 반하여 2008년에는 45만 5천개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임시근로 일자리 수는 2007년 동기간 8만개 증가에서 2008년에는 13만 7천개 감소로 돌아섰다. 상용근로와 임시근로를 합산한 일자리 수는 39만 3천개 증가에서 3만 8천개 증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7만 5천개가 순감하였으며, 이는 비정규직 법안의 확대 시행이 신규 일자리 창

출력 감소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일자리는 2007년 3, 4월 평균으로 전년동기대비 천개 감소에 그쳤으나, 2008년에는 7만 4천개가 감소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일자리 수 감소가 6만 1천개에 달하여,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된 소규모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부진한 분야는 소기업 / 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2007년 3, 4월 평균 6만 5천개의 일용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2008년에는 6만 6천개가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2007년 1만 2천개 감소에서 2008년에는 2만 2천개 증가로 반전하였으나, 소기업은 2007년 1만 1천개 증가에서 2008년에는 6만 8천개 감소로 돌아서 국내 부문의 건설 경기 침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4. 정책적 시사점

첫째, '수출 - 성장'보다는 '내수 · 고용 -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현재의 여건은 물가가 양등하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수 중심으로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국내 경기 활성화 효과가 적은 순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내수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수출보다는 내수와 고용, 성장보다는 물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통화 · 금융 · 외환 정책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 정책은 국민소득 보전, 내수 경기 급냉 방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합 (Policy Mix)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내수 경기 급냉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감세 정책은 국민 소득을 보전해주는 의미는 있으나, 내수 파급 효과는 크지 않다. 따라서 공공 건설과 같이 고용창출과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부의 감세 정책은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의 소득보전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급증과 함께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은 한계 상황에 이르러 퇴출될 경우 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근로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의 감소라는 고통은 겪더라도 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넷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나기 마련이며, 따라서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고정비용 증가를 우려하여 일자리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 조건은 개선하더라도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 최근 고용창출 부진의 특징과 시사점 >



## 1. 문제의 제기

### ○ 한국 경제 고용 창출력의 장기 추이

- 한국 경제는 경제 규모와 인구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수는 1970년대 평균 1,208만명에서 2000년대 2,272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은 급감하고 있음
  - 경제의 고용탄성치는 1970년대(1972~1979) 평균 0.5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 이후에는 0.26으로 고용창출력이 크게 둔화
  - 제조업 부문은 고용탄성치가 1993~1997년 기간의 -0.35에서 2002-2007년 기간에는 -0.13으로 절대 규모는 감소했지만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서비스업은 고용탄성치가 동기간 0.72에서 0.50으로 감소하여 고용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1%당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1991~97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약 6만 3천명에서 2002~07년에 약 5만 9천명으로 줄어들었음

#### <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 추이 >

	72~79	81~90	91~97	99~01	02~07
고용탄성치(A, 취업자수증감률/경제성장률)	0.51	0.34	0.32	0.40	0.26
기간중 평균 취업자 수(B, 만 명)	1,208.4	1,566.8	1,988.9	2,100.6	2,271.8
성장률 1%당 고용창출(B×A/100, 만 명)	6.11	5.30	6.29	8.44	5.8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85호 p.2 재인용

주 : 1) 취업자 수는 구직 기간 1주 기준

2)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980년과 1998년은 제외

- 이와 같은 고용 창출력 저하 상황을 업종별로 보면, 최근의 고용 부진은 서비스 부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왔음

- 그러나, 2008년 들면서는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이 급감하면서 경제 전체의 고용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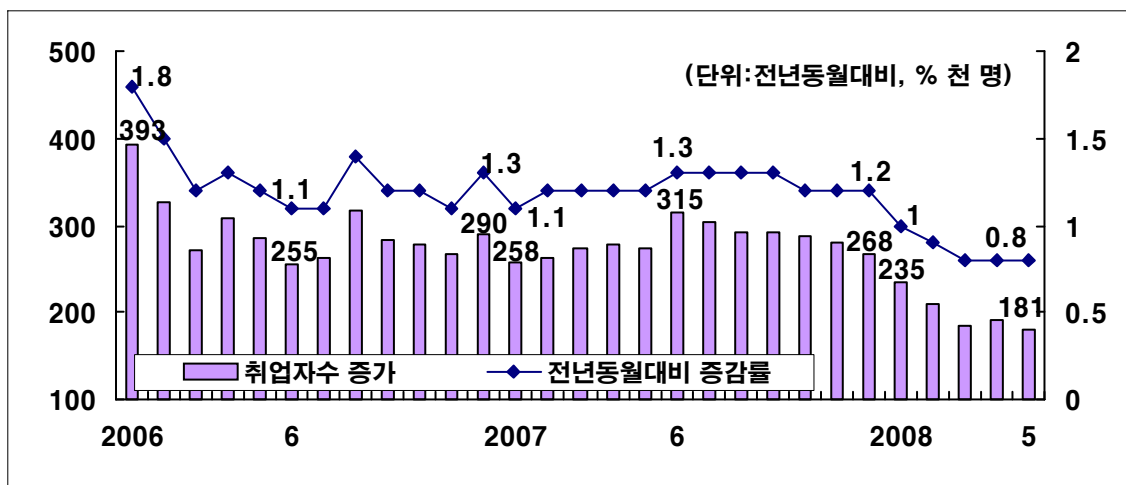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07.1/4	'08.1/4
농림어업	-6.4	-0.5	-1.7	-3.3	-2.8	-4.3
제조업	2.0	-1.3	-1.6	-1.1	-1.2	-0.6
서비스업	2.9	2.2	2.3	2.3	2.1	1.7
건설업	0.2	-0.3	1.1	0.8	2.7	-1.0
도소매음식숙박업	0.2	-1.0	-0.8	-0.6	-1.0	-0.6
전기·운수·통신·금융	1.2	2.7	3.9	2.6	2.8	4.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6.8	5.6	4.7	4.8	0.9	4.4

자료 : 통계청, KOSIS

○ 2008년 신규 일자리 수의 급감

- 2008년 들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20만개 이하로 급감
  - 2006년 이후, 신규 일자리 수의 증가 추이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 특히, 2008년 3월 이후 연속 20만개에 이하로 정부의 목표치 35만개뿐만 아니라, 2007년 동월의 28만개 수준에도 크게 미달됨
  - 취업자 증가율도 전년동월대비 1% 이하로 급락

< 취업자 증가수 및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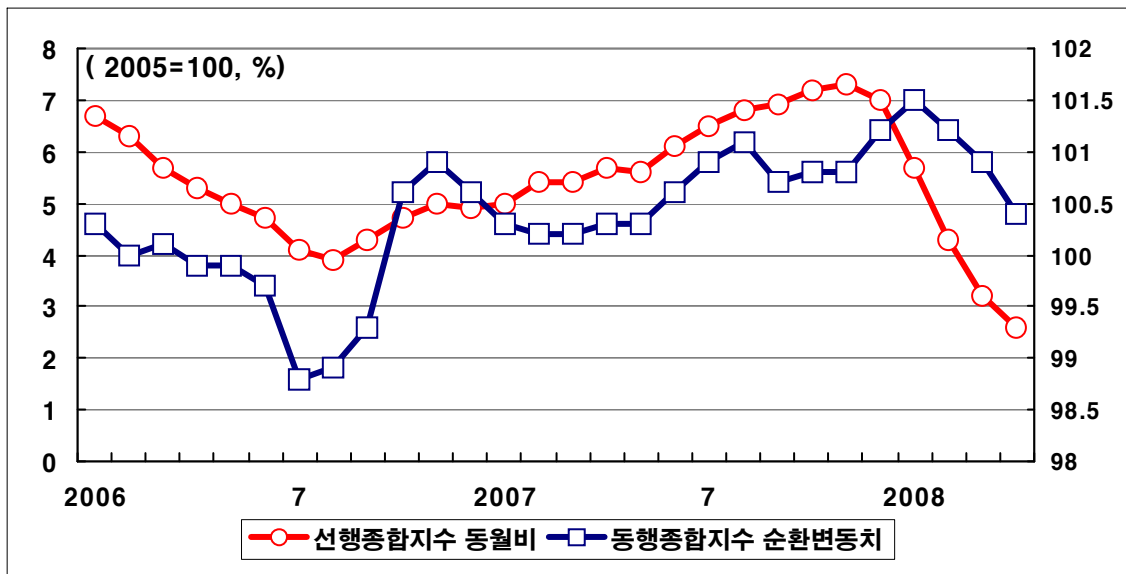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및 각 월별 고용동향



- 더욱이,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월 101.5에서 4월에는 100.4로 하락하고 있으며,
  - 선행종합지수도 2008년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에 그침

< 경기지수 동향 >



자료 : 통계청, 「 2008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 이에 따라, 2008년 3월과 4월의 고용 창출 부진 현황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2008년 신규 일자리 창출 부진 현황

### 1) 고용동향 추이

#### ○ 실업률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 실업률은 2008년 1/4분기 현재 3.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실업률은 2004년 3.7%에서 2007년 3.2%까지 하락하였으며,
  - 2008년 1/4분기는 3.4%이나, 전년 동기 3.6%에 비하면 안정된 수치임
  
- 이와 같은 실업률 하락은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임
  -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 통계 기준상 구직단념자 및 취업준비생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공식적인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에 다소 괴리가 있음
  - 따라서,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실업률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실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율도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 < 경제활동인구 동향 >

(단위: %, 천명)

	2004	2005	2006	2007	'07.1/4	'08.1/4
경제활동인구	23,417	23,743	23,978	24,216	23,692	23,852
비경제활동인구	14,300	14,557	14,784	14,954	15,305	15,575
경제활동참가율	62.1	62.0	61.9	61.8	60.8	60.5
고용률	59.8	59.7	59.7	59.8	58.6	58.5
실업률	3.7	3.7	3.5	3.2	3.6	3.4

자료 : 통계청, 「2008년 4월 고용동향」

주 :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

○ 산업별 취업자 추이

- 우리나라의 신규 일자리는 최근 들어 그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
  - 2006년 1/4분기 33만 1천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 특히, 2008년 1/4분기는 20만 9천개에 불과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세는 둔화된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
  - 농림어업의 일자리는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제조업은 2007년 4/4분기 이후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 반면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을 주도하던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세는 최근들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단위: 전년동분기비, 천명)

산 업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합계	331	283	288	278	264	289	296	278	209
농림어업	-34	-65	-28	4	-42	-52	-72	-67	-62
제조업	-72	-77	-57	-62	-51	-55	-50	-37	-24
서비스업	437	425	371	333	355	397	418	383	295

자료 : 통계청, KOSIS

○ 종사장 규모별 취업자 추이

-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은 개선되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감소
  - 소기업의 일자리는 2007년 2/4분기 17,164천명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07년 3/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08년 1/4분기에는 대폭 감소

- 중기업은 일자리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1/4분기에 정체되고 있음
- 반면 대기업은 2007년 2/4분기 1,821천명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2007년 3/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

<종사장 규모별 취업자 규모>

(단위:천 명)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합계	22,577	23,409	23,314	23,303	22,841	23,698	23,610	23,582	23,051
소기업( ~29 인)	16,194	16,902	16,808	16,811	16,353	17,164	17,056	17,002	16,450
중기업(~299 인)	4,448	4,591	4,640	4,634	4,648	4,712	4,709	4,733	4,734
대기업(300 안)	1,935	1,915	1,866	1,858	1,840	1,821	1,845	1,847	1,867

자료 : 경제활동인구 조사, 2006 ~ 2008.4

- 전년동기대비 증감으로 볼 때에도 소기업과 중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음
- 소기업은 2007년 4/4분기 이후 신규 일자리 증가 수가 전년동분기대비 19만 개에서 9만 7천여개로 약10만개 감소
- 중기업의 신규 일자리 증가 수도 2007년 1/4분기 20만개에서 2008년 1/4분기에는 8만 6천개로 감소
- 대기업은 2007년 1/4분기 이후 신규 일자리 감소 추세가 둔화되어 왔으며, 2008년 1/4분기에는 2만 7천개 순증

< 종사장 규모별 취업자 증감 추이 >

(단위: 전년동분기비, 천 명)

	2007				2008
	1/4	2/4	3/4	4/4	1/4
합 계	264	289	296	278	209
소기업	159	262	248	190	97
중기업	200	121	68	98	86
대기업	-95	-94	-20	-10	27

자료 : 경제활동인구 조사, 2006 ~ 2008.4

○ 고용 형태별 취업자 추이

- 2007년 들면서 정규직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
  -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2005년 8월 9,486천명에서 2008년 3월 현재 10,3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급증하였음
  -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까지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35.3%까지 하락
  - 이와 같은 현상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비정규직근로자 증감 및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

	'05.8월	'06.8월	'07.3월	'07.8월	'08.3월
임금근로자(천명)	14,968	15,351	15,731	15,882	15,993
정규직(천명)	9,486	9,894	9,958	10,180	10,356
비중(%)	63.4%	64.5%	63.3%	64.1%	64.8%
비정규직(천명)	5,483	5,457	5,773	5,703	5,638
비중(%)	36.6%	35.5%	36.7%	35.9%	3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2008.03월

주 : 비정규직 근로자 부가 조사는 2006년까지는 매년 8월 1회, 2007년부터는 매년 3월과 8월 2회 조사

○ 직업별 취업자 추이

- 최근 들어 사무 종사자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반면, 기능·단순노무종사자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
  - 사무종사자의 신규 일자리가 2007년 3/4분기 2만 6천개에서 2008년 1/4분기 13만 9천개로 5배 증가

- 그러나, 매분기 10만개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던 기능·단순·노무종사자는 2007년 3/4분기부터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8년 1/4분기에 는 신규 일자리 증가가 전혀 없었음

< 직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단위: 전년동분기비, 천명)

직업별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합 계	331	283	288	278	264	289	296	278	209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31	228	227	201	150	165	252	233	159
사무 종사자	69	19	21	-50	7	7	26	61	139
서비스·판매종사자	-43	-39	-43	-34	-27	-29	-11	-3	-21
농림어업숙련자	-38	-52	-27	-13	-25	-42	-63	-76	-68
기능·단순노무종사자	112	127	109	174	160	187	92	64	0

자료 : 통계청, KOSIS

2) 2008년 3, 4월 고용창출의 부문별 현황

○ 업종별 / 종사장 규모별 현황

- (업종별) 2008년 3,4월 산업별 실적을 보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능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음
  - 제조업은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감소세는 둔화되어 2007년 3, 4월 △6만 3천개에서 2008년에는 △2만 2천개로 줄어들고 있음
  - 반면 2008년 3, 4월 서비스업의 신규 일자리 수는 25만 9천개로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었음
  - 특히, 서비스업내 업종별로 보면 건설, 운수, 통신,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 및 임대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소기업과 중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급감한 반면 대기업은 2007년 감소세에서 2008년에는 증가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에는 2007년 3, 4월 14만 2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2008년에는 5만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각각 16만 9천개와 24만 9천개에서 8만 6천개와 5만 2천개로 급감하고 있음

- (업종별/규모별) 섹터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감소한 부분은 내수 관련 소기업/서비스업임

- 주요 일자리 창출력 급감 섹터는 소기업/건설업(전년동기대비 △13만 9천명), 소기업/운수업(△8만명), 소기업/부동산및임대업(△5만명), 소기업/사업서비스업(△5만 9천명) 등이며,
- 일자리 창출력이 증가한 섹터는 대기업/건설업(전년동기대비 4만4천명), 소기업/보건·사회복지사업(4만 3천명), 대기업/사회서비스업(2만명), 대기업/교육서비스업(2만 7천명) 등임

< 업종별 / 종사장 규모별 신규 일자리 증감 비교 >

(단위: 전년동기대비, 천 명)

	2007년 3,4월 평균				2008년 3,4월 평균			
	합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합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총 계	276	249	169	-142	188	52	86	50
농림어업	-47	-46	-1	0	-51	-56	5	0
광공업	-64	-62	64	-66	-20	51	-40	-32
제조업	-63	-63	64	-64	-22	51	-40	-33
서비스업	386	357	105	-76	259	57	120	82
건설업	47	71	-3	-22	-28	-68	19	22
운수업	64	68	8	-12	-14	-12	-5	3
통신업	-13	-10	-5	1	-20	-8	-9	-4
도소매업	-34	-28	19	-25	-25	12	-28	-9
금융 및 보험업	3	22	-15	-4	40	19	27	-6
숙박 및 음식점업	-15	-25	8	2	-22	-13	2	-11
부동산 및 임대업	7	17	-5	-6	-35	-33	-10	8
사업서비스업	176	138	40	-2	104	79	8	18
교육서비스업	46	22	31	-8	52	2	31	19
보건·사회복지사업	52	23	15	15	106	66	17	24

자료 : 경제활동인구 조사, 2006 ~ 2008.4

○ 고용 형태별 현황

- 고용 형태별 신규 일자리 증감의 가장 큰 특징은 상용근로는 크게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가 대폭 감소한 것임
- 상용근로자 신규 일자리는 2008년 3, 4월 평균 45만 5천개 증가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동기간 31만 3천개 증가 대비 14만 2천개가 순증한 것임
- 반면, 임시근로자 신규 일자리 창출력은 2008년 3, 4월 평균 13만 7천개 감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동기간 8만개 증가 대비 21만 7천개 순감한 것임
-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서비스업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상용근로는 24만 3천개 증가에서 46만 1천개 증가로 21만 8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시근로는 14만 9천개 증가하였으나, 2008년은 10만 1천개 순감했음

< 고용 형태별 / 업종별 신규 일자리 증감 비교 >

(단위: 전년동기대비, 천 명)

	2007년 3,4월 평균						2008년 3,4월 평균					
	상용근로	임시근로	일용근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상용근로	임시근로	일용근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총 계	313	80	-37	-78	0	-2	455	-137	-40	-18	-37	-37
농림어업	-2	8	-9	9	-45	-4	7	-5	-14	-6	-14	-23
광공업	73	-76	-35	-10	-12	-4	-14	-32	11	-5	25	-4
제조업	72	-74	-36	-10	-12	-4	-18	-32	11	-5	25	-4
서비스업	243	149	5	-76	60	7	461	-101	-35	-7	-50	-11
건설업	25	-14	65	-25	-4	-1	83	-10	-66	-17	-17	-2
운수업	-6	10	5	5	48	3	-10	-4	3	-10	9	-2
통신업	-9	-7	0	-2	5	-1	-12	-11	-1	-2	7	-1
도소매업	33	56	-19	-7	-85	-12	61	-77	23	1	-20	-12
금융 및 보험업	-11	13	-1	-3	5	0	32	21	-2	0	-12	0
숙박 및 음식점업	11	27	-58	-22	15	12	8	-35	27	-2	-13	-6
부동산 및 임대업	-7	0	2	4	2	6	-17	6	-11	-6	-9	1
사업서비스업	138	15	28	-13	7	1	98	-10	-1	4	8	5
교육서비스업	-10	22	-3	1	28	8	59	13	8	1	-4	2
보건·사회복지사업	55	1	-3	2	-3	-1	74	32	-1	5	1	0

자료 : 경제활동인구 조사, 2006 ~ 2008.4



- 이와 같은 임시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이 궁극적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와 임시근로를 합산할 경우 2007년 3, 4월에는 39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2008년에는 31만 8천개가 증가하는데 그쳐
  - 종합적으로는 7만 5천개의 신규 일자리 순감으로 이어짐
  
- 한편, 내수 관련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경기 침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건설업은 2007년 3, 4월 평균 6만 5천개의 일용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2008년에는 6만 6천개가 감소로 일자리 창출력은 총 13만 1천개가 감소
  - 또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의 신규 일자리가 2007년 2천개 감소에 그쳤으나 2008년에는 7만 4천개 감소(서비스업에서만 6만 1천개 감소)로 나타나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3. 신규 고용창출 부진의 다섯가지 특징

- 첫째, 2007년 2/4분기 이후 대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음
  - 대기업의 경우에는 2007년 3, 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4만 2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2008년에는 5만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분기별 추이를 보면, 2007년 2/4분기 182만 1천개를 저점으로 2008년 1/4분기 186만 7천개까지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각각 16만 9천개와 24만 9천개에서 8만 6천개와 5만 2천개로 급감하고 있으며,
  - 특히 소기업의 경우에는 2007년 2/4분기를 정점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임
  
- 둘째,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은 개선되는데 반하여 서비스업은 크게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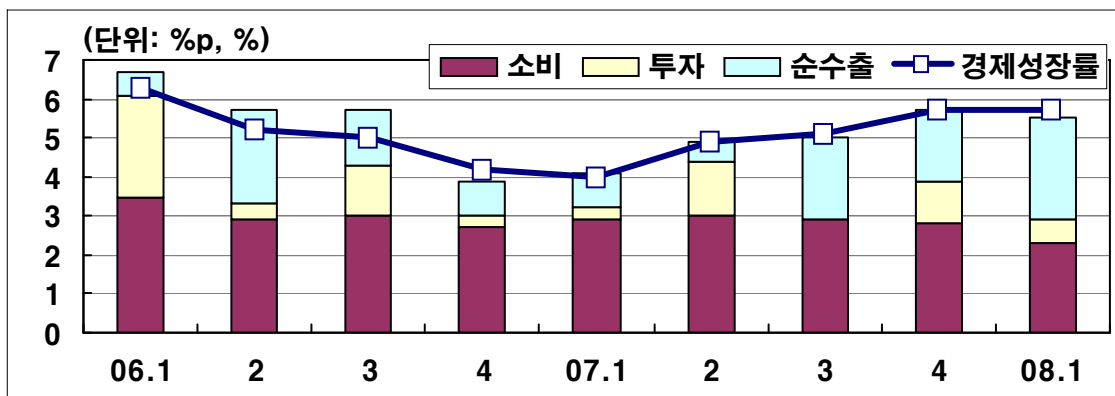
- 제조업은 2007년 3, 4월 평균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 3천개의 일자리 감소세에서 2008년 3, 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2만 2천개 감소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
  - 반면 서비스업은 2007년 38만 6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2008년에는 25만 9천개 증가에 그쳤음
  - 서비스업 중에서도 건설, 운수, 통신, 도소매, 숙박 및 음식, 부동산 및 임대 등 내수 관련 업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종업원 29인 이하의 소기업 일자리 감소가 특히 심한 상태임
- 셋째, 상용근로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임시근로 일자리는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 일자리 수는 2007년 3, 4월 평균 31만 3천개 증가한데 반하여, 2008년에는 45만 5천개로 대폭 증가
  - 반면 임시근로 일자리 수는 2007년 동기간 8만개 증가에서 2008년에는 13만 7천개 감소로 돌아섬
  - 이와 같은 현상은 서비스업에서 더욱 두드러져 상용근로 일자리 창출은 2007년 24만 3천개에서 2008년 46만 1천개로 대폭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 일자리 창출은 2007년 14만 9천개에서 2008년에는 △10만 1천개로 감소로 전환되었음
  - 상용근로와 임시근로를 합산한 일자리 수는 39만 3천개 증가에서 31만 8천개 증가에 그쳐 전년 동기대비 7만 5천개가 순감하였으며, 이는 비정규직 법안의 확대 시행이 신규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넷째, 급여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2007년 3, 4월 평균으로 전년동기대비 급여 근로자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35만 6천개였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은 2천개 감소에 불과
  - 그러나 2008년에는 27만 8천개가 증가했으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은 7만 4천개가 감소
  - 특히 서비스업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일자리 수 감소가 6만 1천개에 달함
  - 이는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된 소규모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부진한 분야는 소기업 / 건설업으로 건설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음
  - 건설업은 2007년 3, 4월 평균 6만 5천개의 일용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2008년에는 6만 6천개가 감소했음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2007년 2만 2천개 감소에서 2008년에는 2만 2천개 증가로 반전하였으나,
  - 소기업은 2007년 7만 1천개 증가에서 2008년에는 6만 8천개 감소로 돌아서 국내 부문의 건설 경기 침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4.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수출 - 성장'보다는 '내수 · 고용 -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 운용이 필요함
  - 현재의 여건은 물가가 양등하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수 중심으로 일자리가 급감
  - 특히 경제는 성장하지만, 국내 경기 활성화 효과가 적은 순수출 중심의 성장으로 내수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임
  - 따라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수출보다는 내수, 성장보다는 물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 통화 · 금융 · 외환 정책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 정책은 국민소득 보전과 내수 경기 급냉 방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함

< 분기별 성장 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ECOS

- 둘째, 내수 경기 급냉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고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이와 같은 정책은 물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의미 있음
  - 그러나, 감세 정책에 더하여 공공 건설과 같이 고용 증대와 경기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병행할 때 정책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정부의 감세 정책은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의 소득보전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급증과 함께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이들은 한계 상황에 이르러 퇴출될 경우 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됨
  - 이에 반하여 근로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의 감소라는 고통은 겪더라도 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정부의 감세 정책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넷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에 주력해야 함
  -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나기 마련이며, 따라서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마땅함
  -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고정비용 증가를 우려하여 일자리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 조건은 개선하더라도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음
  - 고용의 안정성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호정 연구원 (3669-4047, chjss@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생산자물가 급등세 지속

○ 5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산품 가격 상승,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전월대비 2.4% 상승하였음

- 농림수산물은 조류 독감 등에 따른 대체수요증가로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상승하였으나, 기온상승에 따른 출하증가로 채소, 과일 등이 내려 전년동월 대비 1.2%, 전월대비 3.0% 하락함
- 공산품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1차제품, 조립금속제품 등이 올라 전년동월대비 16.6%, 전월 대비 3.6% 상승함
- 서비스는 TV광고료 하락으로 광고 서비스가 전월대비 0.2%하락하였으나, 외항화물운임 상승으로 운수가 3.5%, 전문설계감리비 상승 등으로 전문서비스가 1.5% 상승하여 전월대비 1.1% 상승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7(0.7)	-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4.4	5.8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1.0	0.4	-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5.3	-2.5	-
		수출	14.4	14.1	9.4	18.2	17.5	18.6	27.0	-
공급	광공업생산	8.3	6.8	6.0	11.0	10.5	10.1	10.5	-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31	2,371	<b>2,376</b>	
	실업률 (%)	3.5	3.2	3.1	3.0	3.4	3.4	3.2	<b>3.0</b>	
	수입	18.4	15.3	7.3	25.9	28.2	25.9	23.7	-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1	-	-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59	-7	0	-	
물가	생산자물가	2.3	2.7	2.0	4.3	6.9	8.0	9.7	<b>11.6</b>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 금융 동향 : 주가 급락 및 금리 급등

###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달러화 강세

- **금리**: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상승 (국채 10년물 : 4.04→4.21%)
- **환율**: 달러화는 미 재무장관의 달러약세 방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시사 및 연준 고위인사의 금리인상 필요성 발언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 (\$/€ :1.5554→1.5439, ¥/\$ :105.94→107.96)

###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대폭 하락 및 금리 급등

- **주가**: 유가 급등, 골드만삭스의 대규모 상각 단행설 등에 따른 신용불안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등이 이어지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832.3→1,747.4)
- **금리**: 주초반 유가 및 환율 급등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로의 전환 전망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급등 (국고채 3년 수익률, 5.48→5.74%)
- **환율**: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사 등의 결제수요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에 따른 본국 송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상승 (1,023.50→1,041.0)

### ○ (전망) 주가 급락에 따라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 전망

####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4/4	1/4	2/4	3/4	4/4	1/4	6.5	6.13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703.9	1,832.3	1,747.4
	국고채3년(%)	4.92	4.76	5.26	5.46	5.74	5.10	5.48	5.74
	원/달러	929.8	940.9	923.8	915.1	936.1	990.4	1,023.5	1,041.0
해외	DOW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63	12,604	12,142
	Nikkei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2,526	14,341	13,889
	미국채10년(%)	4.70	4.57	5.02	4.59	4.02	3.41	4.04	4.21
	일본채10년(%)	1.69	1.60	1.88	1.69	1.51	1.29	1.74	1.81
	달러/유로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5788	1.5593	1.5439
	엔/달러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99.70	105.94	107.96
	두바이(\$/바렐)	56.71	63.12	66.42	76.64	89.06	97.66	118.99	130.16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6.12) 기준